

사회

광주 LPG 과충전 택시 수두룩

85% 이상 주입 막는 밸브 떼고 운행 ... 폭발위험 상존

연료 많이 충전하려 ... 긴급 점검 시급

서울에서 압축천연가스(CNG)버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LPG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광주지역 영업용 택시도 폭발 위험을 안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지역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와 LPG 충전소·차량 정비업소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상당수 영업용 택시들이 LPG 택시 연료탱크에 장착된 '과충전방지 밸브'를 떼어낸 뒤 운행을 하고 있다.

이는 운전기사들이 잦은 연료 충전을 불편하게 생각해 연료탱크 용량의 85% 정도만을 채울 수 있도록 부착된 '과충전방지 밸브'를 떼어내 연료를 100% 충전하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택시는 항상 폭발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등록된 영업용 택시는 모두 3481대다.

NF 쏘나타 기준, 영업용 택시 연료

탱크 용량은 약 85ℓ. 하지만 실제 충전 가능한 최대 LPG양은 연료탱크 용량의 85%가량인 68ℓ이다. 용량이 초과할 경우 연료탱크가 외부 기온변화에 따른 내부 압력 상승으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료탱크에는 폭발 방지를 위한 과충전방지 밸브가 설치돼 있다. 이 밸브는 연료탱크 내·외부 압력 24kg/cm²~28kg/cm²를 유지해주면서 과충전을 막아준다.

그러나 일부 운전 기사들이 이를 제거한 채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다. 과충전 방지 밸브를 떼어내면 연료탱크 용량의 전량을 충전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LPG 충전소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LPG 충전소는 67곳.

이 같이 일부 영업용 택시 연료탱크에 대한 폭발 위험성이 제기된 만큼 체계적인 조사와 점검에 나서는



▲과충전 방지밸브=LPG 자동차의 연료공급용 탱크 안에 설치된 부품으로, 연료가 과다하게 충전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연료가 85%가량 충전되면 자동 차단된다. 과다 충전할 경우 용기 내 온도가 상승, 연료가 용기 내부에서 팽창하고 압력이 상승해 용기가 폭발할 수 있다.

등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업용 택시운전기사 김모(56)씨는 "우리는 시간이 돈이다. 한 번 충전할 때 가능한 (LPG)많은 양을 충전하는 게 이익"이라며 "잘 아는 정비업소를 통해서만 안전장치를 제거하는데, 위험한 일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 H자동차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연료탱크 폭발 땀 주변에 작·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충전

방지밸브를 떼어내는 행위는 운전기사는 물론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상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해진 자동차의 구조·장치(연료 장치 등)를 변경하려면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겼을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단체급식 세균검사

최근 광주·전남에서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0일 광주시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지역 내 단체급식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부모·딸·사위 '성매매 알선 가족'

서부경찰, 6억3천만원 채권 4명 구속·입건

20대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성매매를 통해 수익원을 벌 일 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10일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중간에서 돈을 챙긴 유흥주점 업주 김모(·여·49)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도운 김씨의 남편(55), 딸(28), 사위(29)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이모(34)씨와 손님과 주점 여종업원을 모텔로 실어 나른 모텔 종업원(28)도 같은 혐의로, 돈을 받고 주점에 여종업원을 소개해 준 이모(42)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일가족 4명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 달 초순까지 광주시 서구 양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여종업

원 A(29)씨 등 2명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뒤 6억3000만원 상당을 채권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무려가 직업소개업자 이씨에게 속칭 '선불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주고 A씨 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지불한 '선불금'을 이유로 A씨 등에게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한상률 비판 前 세무서직원 항소심서 무죄

나훈아 '고향역' 배경은 익산역

광주지법 형사 6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0일 한상률 전 국제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구급은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준비했고, 무선기기에 대한 위치정보 서비스 기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무선랜(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의 시리얼 번호를 수집하고 다녔다.

이에 대해 구급측은 "수집된 개인 정보는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28일 국제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극기발행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려고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는 데 대한 감사의 입증은 부족하지만, 실정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상나팔

○"코스모스~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번이 끝분이 모두 나와 반겨 주겠지... 달려라 고향역 차..." 호남선과 전라선의 환승역 기능을 하는 익산역에서는 요즘 매시간 정시와 30분에 안내방송과 함께 국민 가수 나훈아씨의 '고향역'이 흘러나와 눈길.

○"익산역이 매일 50~60대의 귀에 익은 이 노래를 방송하는 이유는 노래 제목인 고향역의 배경이 바로 익산역이기 때문이다.

○"이 노래는 작곡가 임종수씨가 확장시절 고향인 순창에서 익산시내의 학교로 가기 위해 황등역~익산역 구간의 열차를 매일 이용하면서 보고 느낀 코스모스와 고향의 부모님 등을 기억하며 만들었다는 것.

○"코레일 전북본부는 '고향역은 익산역'이라는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이 노래를 틀고 있으며, 앞으로 익산시와 함께 고향역 노래비를 건립하는 한편 가요제도 개최할 계획.

/연합뉴스

광주 시내버스 275대가 연료통 노후

일제점검 나서

9일 서울에서 폭발사고가 난 천연가스(CNG) 시내버스의 연료통은 10년 전인 2000년 생산된 이탈리아제다.

사고원인이 연료통 결함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광주에서도 장착된 지 7년이 넘는 노후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전체 926대 중 30%에 육박하는 275대나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1년부터 지역에 도입된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디젤 시내버스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급격히 그 수가 늘어났다. 광주시는 2001년 14대를 시작으로 2002년 141대, 2003년 120대, 2004년 108대, 2005년 이후 543대 등 매년 최소 41대에서 최대

141대까지 사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 광주 시내 버스 총 952대 중 97.26%가 천연가스 시내버스이다.

문제는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언제든 폭발사고의 개연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시내버스 업체들은 특히 2003년 이전 제조된 밸브 방식 연료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엘지운수 관계자는 "이번에 사고가 난 2000년 생산 연료통은 자체 결함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2003년부터는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연료통으로 대체됐다"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으로 인해 버스운전원이 연료통을 꼭 채워 운행, 연료통이 가스압력을 견디지 못해 폭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서울에서 발생한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폭발 사고가 관련해 천연가스 시내버스에 대한 일

제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남구청 쓰레기차량 전복

1명 숨지고 2명 부상

10일 오전 7시께 화순군 화순읍 이삼리 입구 앞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싣고가던 남구청 소속 5t 화물차(운전자 강모씨·38)가 전진주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정모(54)씨가 숨지고 운전자 강씨와 또 다른 동승자 장모(58)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강씨는 남구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뒤 화순에 있는 모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로 향하던 중이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개인 정보 무단 수집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의 영상 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한 '스트리트뷰'를 만들고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통신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구급은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준비했고, 무선기기에 대한 위치정보 서비스 기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무선랜(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의 시리얼 번호를 수집하고 다녔다.

이에 대해 구급측은 "수집된 개인 정보는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운동기구 훔친 2명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10일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아파트 현관에 놓인 운동기구 등 생활용품을 훔친 조모(39)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6일 오후 5시5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아파트 10층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이모(53)씨의 다리 운동기구를 훔치는 등 총 8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영호남 청소년 역사문화교실

10일 오후 광주시 북구 광주직업사범초·중·고등학교에서 '영·호남청소년 역사문화교실' 입소식이 열렸다. 영·호남청소년 120명은 2박3일 동안 5·18 묘지참배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게 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뺑소니 20대 여성 50여일만에 검거

광주남부경찰은 10일 도로에서 사람을 친 뒤 달아난 김모(여·26)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20일 새벽 1시20분께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해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A(48)씨를 발견하지 못해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전치 10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를 낸 직후 도주했다가 30여분 뒤 자신의 남친과 함께 현장에 돌아와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씨는 사고현장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차종을 확인한 뒤 사고 시간대 현장에서 지인과 통화했던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

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이번 모임은 어리가 좋을까?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7월29일부터 8월1일까지 7일간 호남지역 전지역에서 100명 이상을 모집합니다. (호남지역 전지역에서 100명 이상을 모집합니다.)

7월29일부터 8월1일까지 7일간 호남지역 전지역에서 100명 이상을 모집합니다. (호남지역 전지역에서 100명 이상을 모집합니다.)

525-2111